

# “긴 흐름 안에서 한 인물의 역사 보여주고자 했다”

## 종영 ‘육룡이 나르샤’ 이방원 역 유아인 소감

SBS TV 50부작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가 22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방원을 연기한 유아인(30)은 22일 오후 한남동 뮤지엄에서 ‘뽕 뽕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어제는 훌쩍분하고 시원했다. 그런데 오늘 가슴이 뽕 뽕린 기분이 들었다. 주위에 직장생활하다가 관두면 이런 기분이라고 물었다. 가장 호흡이 길었던 작품이다. 찍을 때는 끝까지 않을 거 같아서 사투를 벌였는데 막상 이렇게 끝나니까 알 수 없는 기분이 든다.”

‘육룡이 나르샤’는 고려라는 당시 거약에 대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제3대 왕에 오르는 이방원의 대의와 야망을 담았다. 유아인은 혁명가적 모습을 지닌 청년부터 결국 손에 피를 묻히면서 왕좌에 오르는 이방원의 변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려내 주목받았다.

유아인은 기존과 다르게 해석된 이번 이방원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내면 보여주기”에 주력했다. 기본적으로 “연민으로 해석하고 이해로 다가가려”고 했다.

스스로에게 부여한 미션은 한 인물의 역사를 다채롭게 보여주는 것이다. “긴 흐름 안에서 한 인물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했다. 나이의 변화부터 내면의 변화, 성장의 과정을 잘 그려보고 싶었다.”

흔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방원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견고해서 변주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고민이었다. 기존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이방원을 보여줄지 역사적 인물이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전달할지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웠다.”

“직설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배우답게 때로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건 잘못 된 거 아닌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

만 않았다. 싸가지 없다고 비난하니까, 몸을 사렸다. 그런 나를 보면서 이게 나이가 드는 건가, 슬프기도 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았다. 힘든 점을 물어봐서 힘든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자세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자신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다.” 그는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넓히는 선에서 거침없고 싶다. 많이 이해받고 싶다”고 밝혔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깎아먹지 않고 최대한 진실될 수 있을까. 선택적으로 만들어진 솔직한 속에서 어떻게 거침없고 흥미로운 배우가 될까. 나에 대한 책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의 책임 때문에 달리 생각하게 됐다. 나 정말 잘하고 싶다.”

유아인은 지난 1년 최고의 해를 보냈다. 영화 ‘베테랑’과 ‘사도’ 그리고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까지 눈부시게 빛났다. 유아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부담감은 없을까. “없다. 난 선입견이 지속되는 걸 견디지 못한다. 자꾸 깨고 싶어 한다. 다행히 유아인이란 배우를 좀 폭넓게 봐주는 거 같아서 그냥 자유롭게 놀려고 한다.”

최근 대세가 송중기로 바뀌었다고 하자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하는 형과 누나가 잡뽕서 기분이 좋고 부럽다”고 답했다. “우리는 합들게 (시청률율) 17% 만났는데 순식간에 30%를 찍더라. 얼마 전 홍콩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도 질문의 80%가 ‘태양의 후예’ 관련이었다. 좀 서운했다. 그 정도로 인기구나 체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인 대세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아인도 지난 한 해 “뽕 뽕했다”고 인정했다. “너무 칭찬을 많이



22일 종영한 SBS TV 50부작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의 이방원 역할을 멋지게 소화한 유아인

해줘서 비행기 타고 저 멀리 날아갔다 왔다. 지금은 좀 진정됐다. 꿈꿔본 순간이었던 거 같다.

이방원을 연기하면서 대의를 향해 달려왔다. 인간 유아인의 대의, 가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는 “사람이다”고 답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모든 사람들

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 좀 간지러운 표현이지만 말이다. 2대 때는 성장이 가장 큰 화두고 가치였다. 그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다.”

오늘 거거에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배우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배우 겸 인간 유아인이 있었다.

/인진수 기자



##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새로운 유니폼 공개

대한축구협회와 나이키는 24일 태극 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홈, 원정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 디자인은 축구대표팀의 정통성을 고수하면서도 세부적인 디자인 하이라이트를 통해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홈 유니폼은 기존 아이코닉한 색상인 붉은색을 상·하의에 모두 적용했다. 상의에 수평으로 뻗어 있는 역동적인 줄무늬와, 상의와 하의로 이어지는 파란색상의 선명하고 굵은 줄무늬가 유니폼 측면에 배치돼 태극을 완성했다. 측면 파란색 줄무늬 디자인은 신축성 있는 소재로 제작돼 통기성을 극대화해 주며 선수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따라 소재 안쪽에 다르게 배색된 노란색의 하이라이트가 드러나면서 그라운드 위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전달한다.

원정 유니폼 역시 홈 유니폼과 동일한 줄무늬 디자인과 더불어 한반도 역사상 유능하고 용맹한 전사로 대표되는 화랑의 의복에서 영감을 얻은 흰색 색상을 상·하의에 적용했다.

슈팅리케호는 이날 오후 8시 안산외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레바논전에 새 유니폼을 입고 뛴다.

새 유니폼은 Nike.com을 비롯해 지정된 나이키 매장 및 나이키 축구 전문매장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김민근 기자

## 홍진영 두번째 미니앨범 ‘화양연화’ 발표

‘트로트 퀸’ 홍진영(31)이 1년4개월 만인 24일 두 번째 미니앨범 ‘화양연화’를 발표했다.

타이틀곡은 ‘엄지 척’이다. 홍진영의 장기간 상급발전한 목소리와 경쾌하고 밝은 멜로디가 잘 어우러진 곡이다.

‘박현빈의 ‘콘드레 만드레’, 장윤정의 ‘허버비’ 뒀구나 있어’ 등을 만든 트로트계 콤비 작사가 최비룡·작곡가 최고아가 합작했다. 이효리, 조성모, 핑클, 티보 등과 작업한 작곡가 안정훈이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홍진영은 “제목 ‘엄지척’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연지를 ‘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오랜만에 가수로 컴백한만큼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홍진영은 ‘엄지척’ 티저 영상에서 ‘엄지척’으로 변신, 학교와 사무실 등 일상에서 지친 사람들을 찾아가 힘찬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인진수 기자

# KBO, 올 시즌 역대 최다 관중... ‘868만명’ 목표 도전

## 각 구단 설정 토대로 산정... 지난해 기록 보다 18% 증가

한국프로야구가 올 시즌 역대 최다 관중에 도전한다. 목표는 지난해보다 18%가 늘어난 868만433명(경기당 평균 1만2000명)이다.

KBO는 24일 “각 구단이 정한 목표 관중을 토대로 올 시즌 KBO 리그 정규시즌의 목표 관중을 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KBO 리그 정규시즌은 사상 처음으로 10개 구단 체제로 출범하며 총 720경

기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역대 최다 관중인 736만530명(경기당 평균 1만223명)이 야구를 즐겼다.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LG와 두산이 각각 128만명과 125만명을 목표로 잡고 최다 관중 1위에 도전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두산은 2015년 112만381명이 입장해 관중 수에서 10개 구단 중 1위에 이름을 올렸고 LG가

105만340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 시민구장을 떠나 올 시즌부터 국내 최초의 팔각 다이아몬드 형태로 신축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홈경기를 펼치는 삼성은 구단 역대 최다인 84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또 국내 첫 돔 야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으로 자리를 옮긴 넥센 역시 역대 최다인 6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80만962명을 기록한 롯데는 관중을 100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SK도 100만명을 향해 팬심잡이 나선다.

KIA는 올해 75만6000명을 내세우며 구단 역대 최다 관중수에 도전하고,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NC는 60만48명 유치를 위해 뛴다.

한화는 지난해와 동일한 65만7385명, KBO리그 진입 2년차인 kt는 7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김민근 기자

## 바이브 다음달 21일 정규 7집으로 컴백

보컬 그룹 바이브가 다음달 21일 정규 7집으로 2년여 만에 컴백한다.

24일 소속사 더바이브엔터테인먼트 따르면 바이브의 음악적 색은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스펙트럼은 더욱 넓은 앨범이다.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피쳐링으로 참여해 가요계 사상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라인업이 될 전망이다.

소속사 측은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다 보니 3월 말 예정이었던 컴백이 미뤄졌다”며 “수록곡 모두 타이틀곡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성도 높은 곡으로 채웠다”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